

증시 급락에 전남광주 시총 1조4494억 증발

지난달 39개사 4.4% 감소…한전만 1조4123억 줄어
거래대금 28% 급감…금호타이어·한전KPS는 상승

7월 국내 증시가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도 한 달 새 1조4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조4123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감소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금호타이어와 한전KPS 등 일부 종목은 시가총액을 늘리며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장법인 39개사의 시가총액은 31조6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 33조1352억원보다 1조4494억원(4.4%) 감소한 규모다.

권역별로는 광주권과 전남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광주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조6294억원으로 전월보다 3485억원(10.6%) 증가했다.

반면 전남권은 28조563억원으로 1조7979억원(6.0%) 감소했다. 전체 상장법인 시가총액에서 광주특별시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전월보다 0.1%p 높아졌다.

지역 증시 전체 시가총액 감소를 이끈 것은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전월보다 1조4123억원 감소하면서 지역 상장법인 전체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권 시가총액이 6% 감소한

구 분	전 체	광주권	전남권	합계
'26. 6월말	74,335,967	32,810	298,542	331,352
'26. 7월말	58,423,601	36,294	280,563	316,858
변동액(률)	△15,912,366(△21.4)	3,485(△10.6)	△17,979 (△6.0)	△14,494(△4.4)

것도 한국전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 광주특별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6개사의 시가총액은 29조7625억원으로 전월보다 9925억원(3.2%)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23개사의 시가총액은 1조9233억원으로 4569억원(19.2%) 줄었다.

반면 일부 종목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금호타이어다. 금호타이어의 시가총액은 전월보다 692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증가율은

49.4%에 달했다. 시가총액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전KPS도 시가총액이 2조228억원 증가해 증가액 기준 2위를 기록했으며, 증가율은 1.5%였다. 코스닥에서는 전남 소재 그린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이 425억원 증가해 1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7월 광주특별시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6조7485억원으로 전월 9조3686억원보다 2조6200억원(-28.0%) 감소했다. 광주권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4조9869억원으로 29.1% 줄었고, 전남권도 1조7616억원으

로 24.5% 감소했다. 전체 투자자 거래대금에서 광주특별시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에서 0.4%로 낮아졌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에서 거래 위축이 더욱 두드러졌다. 광주특별시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5조8974억원으로 전월보다 26.3% 감소했으며, 코스닥 거래대금은 8512억원으로 37.6% 급감했다.

지역 증시의 이같은 흐름은 7월 국내 증시 전반의 급격한 변동성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7월 말 코스피는 6595.45로 전월 말보다 1881.03p(-22.2%) 하락했고, 코스닥은 719.76으로 196.42p(-21.4%) 떨어졌다. 월초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우려와 중동 지역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기전자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고, 이후 인공지능(AI) 투자 낙관론과 피크아웃 우려가 교차하며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중국 기업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7월

30일 5593.56까지 밀리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이후 미국 기술주 반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반발매수세 유입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는 역대 최대 일일 상승률인 17%를 기록하며 6595.45로 7월을 마감했다.

전체 시장 시가총액도 급감했다. 7월 말 전체시장 시가총액은 5842조원으로 전월보다 21.4% 감소했으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역시 각각 21.4%·21.2% 줄었다. 전체 시장 거래대금도 1676조6583억원으로 전월보다 18.8% 감소했다.

지역 증권업계 관계자는 “7월은 국내 증시 자체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만큼 지역 상장법인 역시 시장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에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기업별 실적과 성장성 등에 따라 종목 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인니 전기차 충전기업, 광주에 법인 설립

광주TP-광주연합기술지주-Starvo. 협약 체결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광주연합기술지주,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PT. Starvo Global Energi(Starvo)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TP와 광주연합기술지주가 수행 중인 광주 에너지친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사업(OpenLAB)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일중 광주TP 융합기술본부장, 손세창 광주연합기술지주 본부장, Chandra Goetama(Starvo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ESS·전기차 충전·V2X 분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인도네시아 SNI 등 현지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Starvo의 광주 정착 및 투자 협력 △지역 에너지기업의 동반 성장 진출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Starvo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광주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 총 100만달러(약 13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금은 지역 내 사업 거점 확보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설비 구축, 현지 인력 채용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TP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센터와 ESS·EV 플러그인 충전기 연계 야의 실증사이트 등을 활용해 Starvo와 지역 기업의 제품 시험·인증 및 실증을 지원한다.

광주연합기술지주는 투자유치와 사업화, 해외기업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Starvo의 광주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주 에너지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Starvo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현지 충전 인프라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 기업이 개발한 ESS와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AI EMS), V2X 제품의 현지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광주연합기술지주,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PT. Starvo Global Energi(Starvo)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농협, ‘섬의 날’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람객에 지역별 이색 농축산물 소개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광주특별시 여수엑스포장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 기간 동안 농협 홍보관을 운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일을 맞아 농협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농축산물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국 섬 지역 농협에서 생산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전시해 지역별 특색있는 농축산물을 소개하고, ‘NH올원뱅크’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을 안내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높였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의 대학생 봉사단인 ‘N넉핀 봉사단’도 캠페인에 동참해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11일 광주특별시 광산구 소재 체험농장 ‘소울팜’에서 지역 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을 진행했다.

농협광주본부,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단 운영

초등생 50여명 대상…쿠킹 클래스·농장 체험 등

농협광주본부는 11일 광주특별시 광산구 소재 체험농장 ‘소울팜’에서 지역 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함께 추진한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의 농업·농촌 이해 증진 및 농업 가치 함양을 목적으로 마

련했다.

현장에는 이철호 본부장과 임직원 20여명 및 초등학생 체험단 5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감자빵 만들기 쿠킹클래스와 아열대 농장 체험 등을 함께했다.

이철호 본부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자라는 미래세대가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 깊이 담아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협광주본부는 지역사회에 ‘농심천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미래세대와 뜻하게 상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은 지난 6일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평촌팜스테이마을, 소울팜, 송산 목장 등 관내의 주요 체험 농장에서 운영되며, 향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

목포헤인여고 알렉산더팀

전국 해커톤서 ‘창의상’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SW(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참여한 목포헤인여고 ‘알렉산더’팀이 전국 규모의 ‘고교 AI·SW 챌린지’ 해커톤 대회에서 창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 AI·SW 챌린지’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W·AI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디지털 혁신 인재를 발굴하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363개팀, 108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온라인 교육과 과제 평가를 거쳐 선발된 36개팀 108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본선에 참가해 아이디어와 기술 구현 역량을 겨뤘다.

전남 대표로 본선에 진출한 목포헤인여고 ‘알렉산더’팀은 명언자·이아현·강인경 학생과 배준규 멘토가 함께 ‘우리 할머니 AI 메신저 지팡이’를 개발해 창의상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AI가 음성으로 변환해 지팡이를 통해 전달하고, 고령층 사용자가 지팡이에 음성으로 답변하면 이를 다시 문자로 변환해 가족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음성만으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농협은행, 창립기념일 기념

최고 연 8.15% 예·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은 오는 1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NH농심천심 예·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NH농심천심 예금은 농업·농촌의 가치에 공감하는 농협의 ‘농심천심’ 메시지에 맞춘 응원 등을 남기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 기간 1년,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며 총 3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기본금리 연 3.15%에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가입, NH올원뱅크에 농심천심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우대 조건을 채우면 최대 0.5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7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심천심 적금은 1만차 한도로 판매하며 가입기간 1년, 월 최대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기본금리 연 2.30%에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가입, 농심천심 응원 메시지 남기기, NH농협카드로 NH상품을 결제, 농협 ‘올바른 이용카드’ 이용 등 우대 조건을 채우면 최고 연 8.15% 금리가 적용된다. 김은지 기자

국토부, 전국 도시재생 현장 목소리 듣는다

권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담회…내달 3일 전남광주권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공공 이후 지역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주민 공동체 육성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간담회는 12일 서울·경기·인천권에 서 열린다. 이어 대전·세종·충청권은 19일, 대구·경북권 26일, 전남광주권 9월 3일, 전북권 9월 15일, 강원권 9월 22일,

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9월 29일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공간연구원(AURI)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지원, 주민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육성 등을 담당하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제고와 준공지역·거점시설 사후관리, 광역·기초 지원체계 간 역할 분담, 균형성장 관련 사업 연계·조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특히 권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영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해 지역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행정과 주민,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도시재생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